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인물 관계와 서사화 과정을 중심으로-

송주현**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타락한 세계,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
- III. 사랑의 세계와 무한책임의 윤리
- IV. 나오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김유정 소설의 정체성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실핀다. 구체적으로는 작품 속 인물의 관계와 그것이 의미화·서사화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김유정 소설은 사랑의 서사다. 그의 소설 속에는 1930년대 일제 식민지 현실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중들의 삶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먼저,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轉化)시킨다. 이 수평적 관계에서 인물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따스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더 나아가 이 시선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주었던 대상을 용서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힘의 원동력이 된다. 여기에서 '사랑'의 새로운 주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서로에 대한 자발적 '무한책임'을 수행하는 주체다.

김유정 소설은 일견 우스꽝스럽고 재미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녹아있다. 이는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을 이해와 공감,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작가의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의 소산이다.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주제어 : 김유정, 1930년대, 사랑, 연민, 해학, 무한책임 윤리

I. 들어가며

웃음과 해학, 건강한 민중성과 향토성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김유정은 만 29년의 짧은 생을 살면서 5년이라는 짧은 문학적 생애 동안 약 30여 편의 소설을 남겼다. 그의 문학이 놓인 1930년대는 먼저 문학외적으로는 식민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무자비한 수탈이 가속화되던 시기였고, 문학 내적으로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양분된 형태의 지식인의 문학적 계보를 형성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짧은 생애를 살며 한국적 정서와 민중상을 보여주며 해학과 웃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한 김유정은 당대 문단에서 매우 독보적인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소설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두 계보로 포괄되지 않는 지점이 있을 뿐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그가 남긴 소설은 한국 소설, 더 나아가 한국인의 문학적 정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자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의 전기적 생애를 살펴보면 김유정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틱한 소설이자 극적 드라마다. 그는 유복한 집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한 무책임하고도 방탕한 형을 두었다. 몸이 병약하고 현실적으로 무능했던 그는, 이혼 후 돌아온 누이에게 얹혀 구박대기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의 이력은 그의 자전적 소설(『生과의 伴侶』, 『兄』¹⁾ 등) 및 그가 남긴 수필

1)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김유정 소설의 표기는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강, 2007을 따랐다. 이하 인용 역시 같은 책의 표기를 바탕으로 하며 쪽수 등도 이 전집을 따른다. 이하 “『원본 김유정 전집』은 『전집』으로 표기했다.

및 다양한 기록들에 담겨 있다. 즉 성장과정의 체험과 경험들이 하나의 혼적, 혹은 트라우마처럼 살아 그의 문학을 추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휘문고보에 다니던 그는 평생의 문우였던 안회남을 만나고 구인회 동인으로서 활동했다. 무엇보다 문우 안회남과 절친하게 지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연상의 여인, 기생 박녹주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게 된다. 그러나 그의 깊은 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짝사랑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22세에 춘천 실레마올로 돌아가 야학활동과 집필활동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폐병을 앓다 불꽃같은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한국문학에서 ‘김유정’이라는 작가, 그리고 그의 작품들이 의미하는 한 마디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점이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1930년대 ‘지식인’ 김유정이 생산해낸 소설들이 도리어 가장 ‘지식인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당대 지식인 작가들과도 상당한 교류를 하였고 마르크스의 『자본론』, 크로보토킨의 『상호부조론』 등에 경도되어 지적체계 또한 충실히 쌓아갔다고 한다.²⁾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 혹은 지적 세계에 대한 흔적은 작품 내 구현된 인물, 공간 뿐 아니라 그것을 서사화 하는 서사기법과 서술방법에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더군다나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다른 작가들이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이를 서사화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소설은 매우 낮설고 새로울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거리’, 혹은 ‘괴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 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거리’는 그의 지식인적 정체성과의 거리이기도 하거니와 당대 지식인 작가들과의 거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실마리로

2) 이덕화, 『김유정 문학의 타자윤리학과 서사구조』, 『김유정과의 산책』, 소명출판, 2014, p.268. 이덕화는 이 논문에서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김유정 소설을 독해의 준거로 사용하면서 서사의 구조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사랑’의 의미에 집중했다. 김유정에게 사랑은 청년시절의 짝사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과 문학을 관통하는 추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김유정 소설이 구축하는 건강한 생명성과 긍정성과 어떻게 접합하며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사랑의 의미를 추출해 내는 과정에서 작품 속 여러 인물들의 관계와 이들이 구체적으로 서사화 되는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덧붙여 김유정 소설 속에 구축된 이 사랑의 세계가 레비나스의 ‘무한책임’의 윤리를 환시시키고 있음에 주목했다. 대상작은 김유정 소설 전집에 실린 전작으로 한다.

II. 타락한 세계,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

김유정의 소설은 궁극적으로 인간성에 대한 한없는 긍정과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귀결되지만, 그 귀결로 가는 도정에는 타락한 세계의 훼손당한 인간 군상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제시된 인물들은 모두 저마다 하나씩의 결핍과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타락한 세계의 속물적 가치관을 체화하고 있다. 이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한, 타락한 세계로 던져진 현실 속 인간들이다. 이들은 김유정 소설 속에서 사랑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당시의 타락한 세계를 상징하는 표지다.

이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노총각(「봄봄」, 「산스골 나그네」, 「총각과 맹꽂이」), 들병이(「숫」, 「안해」), 병자(「산스골 나그네」, 「맹벌」), 거지, 혹은 유랑민(「심청」, 「산스골 나그네」, 「숫」, 「안해」), 홀애비(「애기」), 과부(「生의 伴侶」, 「산스골 나그네」) 유랑민(), 가난한 소작농(「동백꽃」, 「만무방」), 금광판의 노동자(「금」, 「노다지」, 「金」따는 콩밭) 아내, 혹은 딸을 파는 사내(「소낙비」, 「따라지」, 「가을」), 무능력한 남자 혹은 가장(「따라지」, 「떡」, 「

생의 伴侶), 폭력 남편(「떡」, 「슬픈 이야기」), 사기 혹은 거짓, 속고 속이기의 가담자(「애기」, 「금」, 「총각과 맹꽁이」, 「봄봄」, 「두꺼비」, 「노다지」) 등이다. 혹은, 특정한 인물 유형 속에 포획되지 않은 경우라면 타락한 세계의 속물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면서 그 자신의 속악함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의 속악함을 방증한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이들의 결핍이나 혹은 상처들이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현실과 환경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작품 속에서 우직하고도 성실한, 하지만 결혼하지 못한 채 노총각들은 1930년대 농촌에서 김유정이 경험하고 목격한 현실 속 농촌 청년들의 모습이다. 또한 가족이 해체되고, 생의 터전을 잃고 유리하는 당대 민중들의 삶의 재현이기도 하다.

들병이 역시 마찬가지다. 들병이에 대한 기록은 ‘들병이 哲學’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의 수필 『조선의 집시』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³⁾ 들병이는 과거엔 농민이었으나 현재는 유랑하며 살아가는 작부, 혹은 매춘부를 뜻하는데, 손에 술병을 들고 다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유정은 실제로 1930년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으나, 박녹주에 대한 짝사랑을 정리하고 춘천 실레마을로 돌아와 살았다. 그러면서 실레마을로 들어온 들병이들과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수필로 담아낸 것이 『조선의 집시』다.

말하자면 그들은 地主와 빚쟁이에게 收穫物로 주고 다시 한겨울을 念慮하

3) 이 수필에는 들병이들이 들병이가 된(혹은 될 수밖에 없던) 이유, 그들의 역할과 자격, 그들의 활동 및 남편 등과의 관계,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등이 나타나 있다. 이 수필은 김유정의 들병이 소재 소설(「총각과 맹꽁이」, 「숯」, 이 쓰인 다음에 발표된 것이지만 이 작품들에 나타난 들병이의 존재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준거이자 실마리가 된다(유인순, 「들병이 문학연구」, 『김유정과의 동행』, 소명출판, 2014 참조).

기 爲하여 한해동안 땀을 흘렸는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한번 憤發한 것이 들병이 生活이다.

(『조선의 집시』, 『전집』, p.415.)

소설 속 들병이는 1930년대 조선의 기층 민중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들이며, 몸을 매개로 하나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당대 현실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1930년대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와 강제수탈이 가속화되던 시기였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시작된 일제의 수탈은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으로 이어지고, 1930년대에 이르면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김유정의 소설에서 『숫』, 『안해』, 『총각과 맹꽂이』에서 구체적인 ‘들병이’ 인물로 나타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소낙비』의 남편 춘호는 아내를 팔고, 『가을』의 남편 복만이 또한 매매계약서까지 써 가며 아내를 판다. 혹은 『산골 나그네』의 여인 역시 사기결혼을 하여 거지가 된 남편을 먹여 살린다. 이들의 거짓과 인신매매에 이르는 행동들은 마땅히 비윤리적인 것이지만, 이들의 참혹하고도 비윤리, 혹은 반윤리적이기까지 해 보이는 행동들은 자의적 선택이었다기 보다는 “구명도생(苟命徒生)⁴⁾”의 현실이 내몬 극단의 현실의 결과물이라 보기에 합당하다.

냉혹한 현실에 처절하게 매질당한 이들은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논의 논리’에 사로잡히거나(혹은 희생당하여) 아내를 팔거나, 사기 결혼을 하거나(혹은 시키거나), 거짓말을 일삼고 속고 속이는 처지에 있다. 가령 『노다지』의 콩보와 더필이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사이이기는 했으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이였다. 또한 극한 상황에서 서로의 목

4) 유인순, 앞의 글, p.262.

숨을 구해준 사이였다. 그러나 생명의 은인이던 더펄이가 잠채굴에서 돌에 깔려 구원을 요청했을 때 꿈보는 이를 무시한 채 유유히 산을 내려온다.

이렇듯 훼손되고 상실된 인간세계는 처절하고 끔찍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에서, 금을 채굴하던 광부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금을 얻고자 스스로 자신의 발을 돌로 쳐서 피를 철철 흘리며 부상자의 몸으로, 자신의 상처를 동여맨 곳에 광석을 훔쳐 나오는 장면의 그 끔찍함, 처절함과도 상통한다.

굵은 사내끼는 풀러제쳤다. 그리고 피에 젖은 굴복 등거리를 조심히 풀쳐 보니 어는 게 살인지, 어는 게 빠인지 분간키 곤란이다. 다만 호느적 호느적하는 아마 돌이 내려칠제 그모에 밀리고 으르러지기에 그렇게 되었으리라. 선지 같은 고기덩이가 여기에 하나 붙고 혹은 저기에 하나 붙고. 발뽀락끼는 그 형체 좇아 잃었을만치 아주 무질러지고말이아니다. 아직도 철철피는 흐른다. 이렇게까지는 안되었을텐데! 그는 보기만하여도 너무 끔찍하여 몸이 조라들 노릇이다.

(『금』, 『전집』, p.82.)

또한 김유정의 소설 전편(全篇)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남성 실업자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전형적인 후예다.⁵⁾ 이들은 자신의 무능력으로써 자신을 부양하는 아내, 혹은 누이들을 처절한 삶의 전장(戰場)으로 내몬다. 혹은 자신의 무기력함, 혹은 무능함에 대한 분노로써 아내를 구타하며 철저한 가부장으로 군림한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무능한 불구의 상징물로 읽힌다.

5) 전신재는 김유정과 현덕의 소설을 비교·분석하면서 작품 속 무능한 아버지들은 부권 상실의 상징으로 보았다(전신재, 『부권 상실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김유정과 동시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13, p.35.).

Ⅲ. 사랑의 세계와 무한책임의 윤리

1. 수직에서 수평으로, 관계의 전환

낙원으로부터 타락한 세계로 추방당한 이 고통과 결핍의 인물들, 혹은 인간들에게 김유정이 내놓은 문학적 해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김유정 소설의 사랑의 미학의 출발점은 타락한 세계의 단자화된 각 개인이 그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관계의 확장은 단순히, 고립된 한 개인이 물리적(혹은 객관적·양적)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뜻이 아니다. 도리어 이들의 객관적, 혹은 양적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렇기에 이들은 소설 속에서 변함없이 매우 고립된 상태에 있다. 여전히 이들은 떠돌이 유랑민이거나,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복잡하지 않다. 부부, 혹은 한 둘로 이어진 관계만이 전부다. 설령 이들이 가족을 이룬다 한들 이 가족의 양상 또한 1인, 혹은 2인에 불과하다(『만무방』, 『산골나그네』, 『소낙비』, 『땡벌』, 『가을』, 『따라지』 등).⁶⁾

그런데 이렇게 단자화된 한 개인들은 돌연 그 관계의 의미론적, 존재론적 변환, 혹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그 매개는 바로 ‘사랑’이다. 이 과정에서 상하 계급으로 묶인 관계 역시 수평적 관계로 확장된다. 이 관계는 마르틴 부버가 말한 ‘나’와 ‘그것’의 대상화된 관계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의 ‘나’와 ‘너’의 관계다.⁷⁾ 이는 에리히 프롬이 말한 ‘존재’로서의 사

6) “이것은 근대의 핵가족과는 다른 것이다. 일가친척들과 함께 산 적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세가 기울어 가문의 직계 가족만이 산골에 들어와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준섭, 『몰락농민-유랑인의 삶의 애환과 통념을 넘어선 생존전략 이야기』, 위의 책, p.15.)

7) 마르틴 부버, 김천배 역,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2000.

랑이기도 하다.⁸⁾

『동백꽃』에서 ‘나’와 ‘점순’은 소작농과 마름의 자식이라는 수직적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이다. 그녀에 대한 호감조차 갖지 않는 나에게 그녀가 다만 지주의 딸,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라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수직’적 관계로써 규정된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무화되는 것은 이성에 눈을 뜬 호기심 어린 두 청년남녀의 어울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다.

이들의 사랑이 이성에 눈을 뜬 사춘기 소년, 소녀의 다소 가벼운 낭만적 감정들이라면, 고단한 삶에 내동댕이쳐진 이들에게 사랑은 한 사람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존재론적 변환의 계기로 작동한다. 김유정 소설에서 등장하는 몸 파는 여성들, 가령 들병이, 기생, 창녀 등에 대한 남성들, 혹은 작가의 시선이 그러하다. 통상적으로 몸 파는 여성들은 한국의 유교적 문화에서 용인될 수 없는, 천한 대상의 전형이었다. 많은 소설과 문학작품 속에서 창녀들은 생존을 위해 매춘의 현장에 내몰렸지만, 그녀들은 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면서도, 마치 그녀 스스로가 그 욕망의 노예로 해석되며 단죄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경우, 몸을 파는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시선은 작품 속에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스며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 매음·매춘의 대상이자 주체인 창녀는 인간 ‘이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김유정 소설 속의 갈보, 들병이, 매춘녀, 사기녀들은 사회의 이러한 억압적 시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도리어 그녀들은 자기 삶을, 더 나아가 자신이 부양하는 힘을 잃은 남편을 위해 숭고한 자기희생을

8) 에리히 프롬,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최혁순 역, 『소유나 존재냐』, 범우사, 1999.

감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녀들을 바라보는 작품 속 인물들은 그녀들을 노동하고 희생하는 한 사람이자 인격으로 대한다. 그렇기에 들병이인 줄 알면서도 그녀를 연모하고(『총각와 맹꽂이』), 자신의 아내를 파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부부의 사랑은 도리어 꾀끗하게 지켜지는 것이다(『가을』).

이러한 ‘수직’으로부터의 ‘수평’관계로의 전환은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 간음을 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성난 군중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중이다. 그녀는 단죄와 처벌의 대상일 뿐이다. 그녀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군중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때 그 앞에 예수가 나타나 군중들에게 말한다. “죄 없는 자가 저를 치라”

김유정의 ‘사랑’의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 혹은 바탕이 되는 작품은 그의 자전적 소설이라 할 수 있는 『生の 伴侶』라 할 것이다. 이 작품에 그(작품에서는 ‘유명렬’)가 휘문고보 시절 첫눈에 반한 박녹주(작품에서는 ‘나명주’)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그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계기다.

그가 명주를 처음 본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화장 안한 얼굴은 창백하게 바랬고 무슨 병이 있는지 몹시 수척한 몸이었다. 눈에는 수심이 가득히 차서, 그러나 무표정한 낯으로 먼 하늘을 바라본다.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훌려 안고는 땅이라도 꺼질까봐 이렇게 찬찬히 걸어 나오려는 것이었다.

그 모양이 세상 고락에 몇벌 씻겨 나온, 따라 인제는 삶의 흥미를 잃은 사람이었다.

(『生の 伴侶』, 『전집』, p.252.)

명렬이 명주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녀가 가진 용모의 찬란함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는 명주의 어떤 ‘결핍’을 읽는다. 그것은 허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고독에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이다. 한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읽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모성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그녀에게 투영하고자 한다.

사랑은 ‘마주함’이다. 상대가 어떠한 배경이나 직업을 가졌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슬픔과 결핍을 나의 것으로 읽고 그 이픔을 또한 나의 가슴 결로 읽는 것이 사랑의 출발인 것이다. ‘나’와 ‘너’의 이 관계에서 김유정의 ‘사랑’은 그 존재의미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다. 높고 낮음, 더함 덜함이 없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의미지어진다.

김유정 소설 속에서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김유정이 그의 소설에서 구사한 ‘향토성’의 세계 또한 이러한 사랑의 한 모습이다. 또한 김유정의 문학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목소리로서의 문학이 아니다. 가르치기 보다는 함께 하는 것, 민중의 삶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와 세계를 똑같이 내고 느끼고 즐기는 것. 그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김유정 문학이 감동적일 수 있는 것은 민중을 지도하고 일깨우는 계몽가의 목소리를 낸 문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중에 대한 선각자·지도자로서의 선민적 자리를 고수하는 경계 짓기 혹은 구획짓기가 아니다. 높은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 수평적 관계를 만들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세계를 체화함으로써 공감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자 속성이다. 김유정이 박낙주에 대한 짝사랑을 접으며 찾은 곳이 강원도 실레마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 실레마을, 그리고 농촌의 민중들은 일깨우고 가르쳐야 할 대상이었다기 보다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대상(낙주)으로부터의 사랑을 다시 불 지피게 하

는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타자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정서

앞 장에서 이야기한 바처럼 사랑의 출발은 서로의 관계와 눈높이를 동등하게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같은 눈높이에서 비로소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의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박경리의 문학에서도 사랑은 ‘연민’이라고 했으며⁹⁾ 기독교 세계에서 또한 공허히 여김, 연민이다.

김유정의 소설에는 ‘웃음’과 ‘해학’이 넘쳐나지만, 그 웃음과 해학(용서)로 가는 자리에 깊은 이해와 연민을 상징하는 ‘눈물’이 있다. 이에 소설 속 인물들은 수시로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속악한 세계에 던져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단죄가 아닌 공감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이에 『금』의 아내는 금광에서 광부로 일하던 남편이 그 금을 숨겨 나오느라 자신의 발을 돌로 내리찍어 숨겨 나온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안해는 아무말도 대답지않는다. 고개를 수그린채 보기 흉악한 그발을 뿌리지게 쏘아만볼뿐. 그러나 감으잡잡한 야윈 얼굴에 불현 듯 맑은 눈물이 솟아나린다. 망할것두 다땀아 제발을 이래까지 하면서 돈을 버러오라진 않았건만. 대관절 인제 어떻게 할랴고 하는지!

(『금』, 『전집』, p.83.)

이러한 눈물은 김유정에게 애증의 대상이었던 누나와 형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형은 난봉꾼의 전형으로 유정에게는 폭력, 혹은 포악함이 상징이었지만 그 형을 이해하는 시도로 읽히는 『兄』에서 그는 인간

9) 박경리, 『수정의 메아리』, 솔, 1994.

적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자다. 또한 무능하며 병상에 있던 유정을 보살피는 현실적 생활인 그의 누나 역시 그에게 온갖 화풀이에 악담을 풀어놓는 신세한탄을 늘어놓는 진저리나는 여자지만(『生の 伴侶』) 그녀는 무능하고도 못한 나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릴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이런 이해와 연민의 감정은 애잔하고 쓸쓸하지만 아름답다. 『가을』에는 궁핍과 가난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아내를 소장수 황거풍에게 파는 남편 복만이 있다. 작품의 서술자는 복만의 친구로, 글자 깨나 이는 사람이라 이들의 매매계약서를 써주는 ‘나’다. 이 서술자는 돈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파는 복만의 슬픔을 담담하면서도 애잔하게 그려낸다. 그는 아내를 파는 남편, 팔리는 아내, 게다가 거래 후 사흘 만에 도망친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인간적 선의와 신의를 목도한다. 자신들은 비록 과멸할지언정 아내를 팔아 사방에 널린 빚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 갚으며, 계약서를 써준 나에게까지 그에 대한 수고비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 부부의 인신매매 사기극에 가담하지만 그의 그 가담은 이 가난한 부부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지 그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다. 그들의 행방불명은 분명 당혹스러운 것이지만 한편으로 나는 그들의 사랑을 믿는다. 이 이해와 연민의 깊이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표현된다.

더 말하기 싫어서 나는 코대답으로 치우고 먼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마약 떨어지니 산골은 오색 영농한 저녁노을로 덮인다. 산 봉우리는 수째 이글이글 끌는 불덩어리가 되고 노기 가득찬 위엄을 나타낸다. 그리고 낮음이 들리느니 우리 머리 위에 낙엽소리—

소장사는 쭈그리고 눈을 감고 안엇는양이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모양이다.
마는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복만이는 덕냉이 즈 큰집에 있을 것 같지 않다.
(『가을』, 『전집』, p.200.)

이러한 슬픔의 정서는 산스골 나그네의 며느리의 사기 결혼이 자신의 병든 거지남편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지는 장면에서 고스란히 재현된다.

똥곳이 마르는 듯이 계집은 사내의 손목을 겹겹히 잡아끈다. 병들은 몸이라 끌리는 대로 뒤푹어리며 거지도 으숙한 산 저편으로 가치 사라진다. 수는 사뭇갓흔 물방울을 품으며 물스결른 산벽에 부다뜨린다. 어데선지 지정치 못할 녀대소리는 이 산 저 산서 와글와글 굴러나린다.
(『산스골 나그네』, 『전집』, p.28.)

이 슬픔의 미학은 상대의 슬픔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의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은 나의 것으로 자기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작품 속에서 희생하는 많은 아내들은 그 슬픔을 대하는 모습에서 어떤 삶의 비장함을 느끼게 해 준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까닭이다. 『生の伴侶』에서 권명주에 대한 유명렬의 사랑은 일방적이고도 무모한 것이다. 연상의 여인 기생 명주에 대한 명렬의 순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일방향의 편집증적 집착일 수 있다. 이 작품의 가치는 명주에 대한 명렬의 사랑을 바라보는 서술자(명렬의 친구)의 시선에 있다. 명렬은 끊임 없이 명주에게 무모한 편지를 보내며 그녀와 대화하기 원한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관계’와 ‘존재’로서의 사랑을 이야기 한 마르틴 부버는 대화와 만남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라 했다.¹⁰⁾ 그러나 이 대화는 번번이 실패한다. 이때 ‘나’는 명주를 대신해 거짓 답장을 쓰기 시작한

다. 명렬의 그리움과 간절함을 이해하고 그의 삶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알고 있는 나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이를 서술하고 있는 ‘나’는 이들의 단절된 세계를 이어주며 그 자리를 봉합한다. 명렬이 그토록 원하던 대상인 명주와의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파국으로 끝나지 않음은, 이러한 그를 바라보는 ‘나’의 이해어린 따뜻한 시선이다. 이때, 명렬이 명주의 답장이라고 믿는 그 편지의 실제 발신자가 누군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깊은 병마와 뼈에 사무치는 고독, 무능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명렬에게 명주에게 편지쓰기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나는 그의 슬픔과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애잔한 슬픔을 느낀다. 이 작품이 ‘사랑’의 서사로 읽는다 했을 때 그의 의미는 1차적으로 명렬이 사랑하는 명주에 대한 끊임없는 애착과 순정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랑은 좌절된다. 이때 다시 이해와 연민의 따스한 사랑의 시선이 작동한다. 오직 이 사랑만이 삶의 이유인 허약한 한 사람, 친구 명렬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일, 그것은 그를 안타까이 바라보는 한 친구의 사랑이기도 하다.

3. 용서와 치유, 무한책임으로서의 사랑

수평적 관계로의 존재론적인 전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연민의 감정은 삶의 충만한 에너지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상처에 대한 치유와 타인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서와 치유의 현장에서 화해의 ‘웃음’이 작동한다. 그것은 카니발적 축제의 현장이며 김유정 특유의 해학성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¹¹⁾

10) 마르틴 부버, 앞의 책.

김유정의 웃음과 해학은 사랑이 주는 이 역동성과 삶에 대한 긍정의 가치에 있다. 이에 『총각과 맹꽂이』의 덕만은 자신이 차지하기 원했던 들병이를 친구 몽태에게 뺏겼지만 그 배신감을 콩밭 옆의 돌멩이를 집어 들어 골창으로 던져버리는 정도로 복수의 욕망을 해소한다. 또한 땅을 준다는 말에, 누구의 씨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못생긴 아내를 들여와 도리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애기』의 김필수 역시 그녀를 자신의 진짜 아내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원한이나 감정을 자연스레 소거한 채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주어진 세계의 윤리를 위반한다. 가령 그들은 아내를 팔고 팔리지만 부부로서의 신의와 사랑은 지킨다(『가을』, 『숫』). 돈으로 맺어진 사기결혼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아이를 버리기로 했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품으로 안고 돌아온다(『애기』).

그런데 이 세계의 윤리가 위반된 자리에 새로운 주체가 탄생하며 그들은 새로운 윤리를 구축한다. 사랑하는 주체들의 타자에 대한 ‘무한책임’의 윤리다.

레비나스의 철학에 있어서 타자를 향한 욕망은 이미 내가 불모로 사로잡힌—즉 타자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계에서 타자의 윤리 요청에 응답하는, 책임을 지는 완전한 희생의 속죄 행위, 즉 구속의 차원인 것이다. 그게 불 때, 정의를 공정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사랑의 문제이다. 타자와 분리된 주체를 해체시킴으로써 타자를 향한 ‘나’ 자신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레비나스는 과학인 사고를 통한 논증의 방식이 아니라 끊임

11) 김미현, 『김유정 소설의 카니발적 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유인순, 『생명의 길, 문학의 길 - 김유정의 생애와 문학』, 『김유정과의 동행』, 소명출판, 2014.

없는 윤리인 요청과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것은 타자가 나보다 강해서가 아니다. 타자의 엄청난 물리적 힘 앞에서 인절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타자는 언제나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이다. 타자는 나의 무력 앞에 오히려 노출되어 나의 이기심을 고발하는 자다. 그는 항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완전히 무저항적인 타자는 감히 나의 주인이 된다. 나는 내 앞에서 타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거기서 나의 진정한 주체가 발견되어진다. 그것이 레비나스의 책임의 윤리이다.¹²⁾

레비나스에게 근원적 자유의 긍정은 나의 행복 뿐만 아니라 ‘책임’의 과제를 수반한다.¹³⁾ 레비나스는 “별거벗음 속에서 나타나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 자기자신을 확인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낯선 이를 통해 이기적인 나는 타인에 대한 책임,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윤리적 가능성을 찾아낸다.¹⁴⁾

김유정 소설에서 무한책임의 윤리를 감당하는 사랑의 주체는 주로 여성 인물들이다. 그의 소설에서 순종하는 아내들과 여성들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억압적 표지로 읽히지 않는 것은 이들이 스스로 승인한 사랑의 맹목성에 있다. 이들은 타인의 규정, 혹은 억압적 상황에서 무능하고 무력한 남성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굶주려 헐벗은 타자로서의 남성을 스스로 감싸 안으며 부양하는 것이다. 이 ‘책임’은 강요하지 않은, 자발적 승인에 의한 것이다. 김유정 소설에서 이것은 주로 ‘부양’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기

12) 박중섭, 『레비나스와 민중신학의 대화가능성 모색 - 타자를 책임지는 윤리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18.

13) 강영안, 『책임으로서의 윤리 -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개념』, 『철학』81, 한국철학회, 2004, p.57.

14) 강영안, 위의 글, pp.65~66.

꺼이 맡기는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새롭게 탄생한 이 사랑의 주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순사는 아끼꼬를 데리고 느른한 거름으로 골목을 쫓는다. 쪽다리를 거느니
화창한 사직원 마당, 봄이라고 땅의 잔디는 파릇파릇 돋았다. 저 우에선 투덕
어리는 빨래소리. 한옆에서는 풋밭을 차느라고 날뛰고 떠들고 법석이다.

(「따라지」, 『전집』, p.322.)

서울 사직골 꼭대기의 초가집에 세 들어 사는 아끼고, 그녀는 카페 여급
으로 옆방 ‘톨스토이’를 사랑한다. 누이에게 얹혀사는 톨스토이는 병약함과
무능함의 상징 그 자체지만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그에 대한 사랑과 순정
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여건이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카페여급으로 웃음과 술을 파며 사는 그녀는 방세를 내지
않으려는 세입자로서 방세를 받아내려는 노인영감 구렁이와 여전히 갈등
하고 있다.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이 변함없는 그녀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생
명에 찬 모습을 보인다. 가난한 여성 노동자인 그녀가 식민지적 지배계급
의 상징인 순사 앞에서도 이렇듯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삶과 타인을
사랑하는 자의 당당함이 만들어낸 결과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톨스토이에게 그만은 자신을 ‘아끼꼬’가 아닌 조선의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자 앞에 진정한 자기를 노출하고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
은 것이다.

이러한 무한책임의 윤리와 사랑의 세계는 속악한 세계의 인물들이 세계
관적 전환과 행동의 전환을 가져오게 만든다. 좋아하는 옆집 소녀에게 준

토끼를 ‘잡아먹어 버린’ 배신감 앞에서 나는 도리어 그것이 미안함의 계기가 되어 나와 그를 이어줄까 하는 생각에 도리어 그 토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옥토끼』). 또한 『애기』를 보자. 땅 오십 석에 눈이 멀어 남의 아이를 뺀 여자와 결혼을 하는 필수와 그의 가족은 이 난데없는 사기결혼 중에도 그들이 얻게 될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있다. 하지만 투닥거리며 살아가던 중 필수는 은연 중 아내를 자신의 진짜 아내로 받아들인다.

아들은 차차 안해가 귀여워집니다. 따는 얼굴이 되우 못두생기고 그놈의 땅 오십석은 침만 발르다가 아내 삼키지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히 이미 사십 고비를 바라보고 더구나 홀애비의 몸일진대 안해라는 이름만 드러도 괜찮습니다. 게다 땀땀한 한 두어달동안 가치 지내보니 웬너석의 정이 그리 부푸렀는지 떼칠랴야 떼칠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애기』, 『전집』, p.401.)

사기로 시작한 결혼이지만 그는 함께 시간을 겪고 세월을 겪은 그녀를 자신의 진짜 반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아내와의 합의 하에 아이를 유기(遺棄)하려 한다. 아기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아내 역시 자식에 대한 모정이 그리 깊지 못하니 좀 사는 집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다시 아이를 데리고 돌아온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험하게 골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팔짱을 끼고 덜덜 떨으며 얼미짬 오다보니 다리가 차차 무거워집니다. 저게 올랐으면 다행이지만 올기전 얼어죽으면 어떡합니까. 팔짜를 고쳐준다고 멀쩡한 딸만 하나 얼려죽이는 셈이지요. 그는 불현 듯 조를 부비며 그곳으로 다시 돌쳐습니다. 악이는 맥모르고 그대로 잠잠합니다. 다른이가 불까바 가랑이가 경겨서 얼

른 집어 들고 얼른 나왔습니다. 바루 내년 봄에나 하면 했지 이거 안되겠습니까. 그리고보니 왜 집에서 나왔는지 저로도 영문을 모를 만치 떠름합니다.
(『애기』, 『전집』, p.407.)

시작은 비록 사기였고, 그 아이 또한 그의 자식이 바 거짓결혼의 상징이며, 필수에게는 모욕감과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험벗은 작은 아이를 보며 연민과 안타까움,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IV. 나오며

김유정은 그의 자전적 기록에서 ‘염인증(厭人症)’을 앓았다고 했다. 유년시절의 물질적 풍요 외에 성장과정의 많은 결핍과 말더듬이로서의 트라우마를 가진 그에게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한 그가 박낙주라는 연상의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좌절을 다시 다른 사랑으로 대체한다. 그것은 문학에 대한 사랑이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민중들에 대한 사랑이다.

본 연구는 소설보다 더 소설같은 김유정의 전기적 생애를 살피며 죽는 날까지 사랑의 온기와 불꽃을 간직한 그의 문학적 정체성을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독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출발점에는 그의 문학이 갖는 독보성, 혹은 동시대 여타 작가들과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있었다. 이에 김유정 소설의 인물의 관계와 그것이 의미화·서사화 되는 과정에 집중해 보았다.

김유정 소설은 사랑의 서사다. 그의 소설 속에는 1930년대 일제 식민지

현실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중들의 삶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들은 마치 낙원의 세계로부터 추방당한 자의 모습으로 고통과 속악한 현실에 내던져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이 처참하면 처참할수록 이 고통을 이겨낼 새로운 힘을 요청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죄가 깊은 곳에 사랑이 깊다'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타락한 세계에서 몰락하는 이들의 모습이 선명해질 때 김유정 소설에 구현된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먼저,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화(轉化)시킨다. 이 수평적 관계에서 인물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따스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더 나아가 이 시선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주었던 대상을 용서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힘의 원동력이 된다. 여기에서 '사랑'의 새로운 주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서로에 대한 자발적 '무한책임'을 수행하는 주체다.

김유정 소설은 일견 우스꽝스럽고 재미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처연한 아픔이 녹아있다. 이는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을 이해와 공감,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작가의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의 소산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다시 감싸 안는 따뜻한 위로를 던지는 김유정의 문학이 영원한 현재의 문학으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강, 2007.
- 강영안, 『책임으로서의 윤리 -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개념』, 『철학』81, 한국철학회, 2004.
- 김미현, 『김유정 소설의 카니발적 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 박경리, 『수정의 메아리』, 솔, 1994.
- 박중섭, 『레비나스와 민중신학의 대화가능성 모색 - 타자를 책임지는 윤리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서준섭, 『몰락농민-유랑인의 삶의 애환과 통념을 넘어선 생존전략 이야기』, 『김유정과 동시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13.
- 유인순, 『들병이 문학연구』, 『김유정과의 동행』, 소명출판, 2014.
- 유인순, 『생명의 길, 문학의 길 - 김유정의 생애와 문학』, 『김유정과의 동행』, 소명출판, 2014.
- 윤대선, 『레비나스 얼굴개념과 타자철학』, 『철학과 현실』 61, 철학문화연구소, 2004, pp.112~123.
- 이덕화, 『김유정 문학의 타자윤리학과 서사구조』, 『김유정과의 산책』, 소명출판, 2014.
- 전신재, 『부권 상실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김유정과 동시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13.
- 마르틴 부버, 김천배 역,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에리히 프롬,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 에리히 프롬, 최혁순 역, 『소유나 존재냐』, 범우사,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Love in Kim Yu-jeong's Novels

Song, Ju-hyun

This study aims to comprehend the identification of Kim Yu-jeong's novel with the keyword "love" and its meaning. Toward that end,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s and the narrative.

Kim Yu-jeong's novels are stories of love; his novels reflected the lives of our people groaning under the realitie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the 1930s. Specifically, love first transforms vertical relationships into horizontal ones; in these relationships, the characters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others and look at them with warm, compassionate gazes. Furthermore, these gazes become the driving force of positive power to forgive the objects that have healed and hurt each other's wounds. Here, a new concept of love is born, the voluntary, "infinite responsibility" to others.

Kim Yu-jeong's novels are at first glance, but there are also deep sadness and devastating pain in them. He presents the deep love of the artist who can feel painful human life but sees it as understanding, sympathy, compassion.

Key Word: Kim Yu-jeong, 1930s, love, sympathy, humor, ethics of infinite responsibility

송주현

소속 : 한신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전자우편 : white353535@nate.com

이 논문은 2017년 7월 31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9월 8일 게재 확정됨.

